

# 인권위원장 “트랜스젠더, 곁에 있어…모두 평등한 존재”

###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맞아 성명 발표 “우리 사회 트랜스젠더 대한 차별 여전해” “성소수자 인권 위해 인권위도 연대할 것”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월31일 최 위원장은 “트랜스젠더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3월31일인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은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사회에 드러내고 여러

의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2009년에 지정된 기념일이다.

최 위원장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만들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준다”며 “트랜스젠더가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여

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여러 국제기구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발표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의 경우 트랜스젠더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에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젠더가 직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린 경우는 19%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최 위원장은 이어 “트랜스젠더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며 평등사회를 꿈

꿨던 극작가 이은용님, 음악교사이자 정치인 김기홍님, 당당한 군인 변희수님을 떠나보내야 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성소수자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소수자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정책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우리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할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인권위도 이런 뜻을 함께 할 것이라고 전하며 “성소수자 당사자



와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행동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서선옥기자



초저온물류센터에 보관되는 화이자 백신

3월3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한국초저온 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화이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확보한 백신 추가 물량 50만 회분을 지게

차를 이용해 차량의 백신을 창고로 옮기고 있다.

## 경찰서로 걸려온 “손가락 찾아주세요” 전화, 사연은?

### 중년여성, 택시 문틈에 끼인 손마디 절단사고

“제 손마디가 없어졌어요. 찾아주세요.”

중년 여성이 택시에서 내리다가 문틈에 끼인 손가락 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여성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2시간여 만에 손가락을 되찾았지만, 봉합 수술을 받지 못했다.

3월31일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따르면, 3월29일 오후 10시37분 경찰 상황실로 “손가락을 찾아주세요”라는 긴박한 신고 전화가 왔다.

신고를 한 여성은 중년의 A씨. A씨는 술자리를 마치고 택시에 올랐다가 같은 날 오후 9시50분께 자택에서 약 3km 떨어진 남구의 동네에 내렸다.

A씨는 술에 취해 약 40여분을 걸어 자택에 도착할 즈음, 자신의 오른손 검지 마디 일부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A씨는 112에 전화를 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효덕지구대 경찰관들은 현장으로 출동, A씨의 손가락 마디가 절단된 것을 확인했다.

119구급대가 A씨를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 경찰관들은 수색 작업을 벌였다. ‘조라도 빨리 A씨의 손가락을 찾아 봉합 수술을 받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A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추적, 택시 회사를 거쳐 운전기사 C씨를 만났다. 택시 뒷문틈에서 사고 흔적을

찾았다.

손가락 일부가 문틈에 끼여 절단된 것으로 보고 A씨가 내린 직후 택시 동선을 파악했다.

A씨가 내린 지점으로 300여m 떨어진 곳에서 다음 승객이 탄 것을 파악, 주변을 수색했다.

경찰관들은 뛰고 또 뛰었다. 길교통이에서 A씨의 손마디를 찾았다. 신고 2시간여 만인 3월30일 오전 0시30분이었다.

경찰관들은 A씨가 치료 중인 병원으로 급하게 손마디를 옮겼다. A씨는 응급 처치 뒤 지역의 대학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새벽 시간대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어 봉합 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유나기자

## 전자발찌 찬 채 성추행 30대 남성 검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원룸 계단에서 여성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범행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월31일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20분께

광주 동구 산수동 모 원룸 계단에서 낯선 여성을 뒤따라가 수 분간 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성범죄 이력이 있으며, 두 달 전 출소에 성범죄 판리 대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뒤 성범죄 관리대상자 목록

을 대조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A씨가 착용한 전자발찌 위치 추적을 통해 동선을 파악, 3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7시께 A씨를 산수동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광주지하철, 부정승차 요금 30배 부가...집중단속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오는 4월 23일까지 출퇴근 시간대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월31일 밝혔다.

광주도시철도 전 역에서 자격 없는 승객이 할인 또는 무임 승차권을 사용하거나 비상게이트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승차권 없이 승차 또는 하차하는 경우 등에 대

해 집중 단속한다.

역무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 등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여객운송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근거해 기본운임과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다만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아 운임 및 부가금을 납부한 여객이 30일 이내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를

반환받을 수 있다.

부당하게 사용된 무임교통카드는 1년간 사용이 제한된다.

공사 관계자는 “올바른 양심과 시민의식 구현에 초점을 두고 단속을 펼치고 있다”면서 “서로 신뢰하는 행복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